



## 결핵인물열전 ⑩

결핵환자를 위해  
촉불처럼 자신을 불태운

# 김 동 한(金東漢)

글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 생사를 몰랐던 형제의 해후

김동한은 1919년 6월 25일 경북 금릉군 대항면 향천리(金陵郡 垚項面 香川里) 758번지에서 아버지 김영석(金永錫)과 어머니 서중하(徐仲夏)의 6남 2녀 중 일곱 번째로 태어났다. 김수환 추기경은 바로 그 아래 막내 동생이다. 선대부터 천주교 신자였던 부모는 생업으로 용기 만드는 일과 농사를 겸했는데 직지사(直指寺)로 들어가는 길목의 용기굴 동네 지대골에서 그를 낳았다.

김동한은 1928년 10세 때 군위(軍威)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으며 1932년 보통학교 4학년을 수료하고 대구 성 유스피노 신학교 예비과에 전학하여 사제수업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 1934년 서울 동성상업학교 을조(乙組: 小神學校)에 입학하여 1938년 이 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에는 광복의 기쁨과 함께 12월 15일 사제서품을 받고 부산 범일동성당에서 보좌신부로

일하게 되었다.

일제 말 학병으로 끌려갔던 동생 수환이 1946년 12월 귀국선을 타고 부산에 상륙하여 허기진 배를 달래며 찾아간 곳은 우연히도 그가 보좌로 있던 범일동 성당이였다. 생사를 몰랐던 형제는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후 그는 대구 계산성당 보좌, 경북 상주군 함창성당 초대 주임, 그리고 경남 진양군 문산성당 주임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6.25를 맞이했으며 1951년 8월 군종신부로 해군에 입대하여 1958년 중령으로 예편했다.

김동한은 1959년 41세 때 도미 유학, 보스턴 포담대학교 대학원 교육철학과에 입학하여 다음해에 수료했으며 61년 다시 뉴욕 성 요한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과에 들어가 63년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대구 내당성당 임시 주임으로 일하다가 다음해에 경산성당 주임으로 부임하여

영남대에 출강하는 한편 본당 내의 20여 명 결핵환자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와 결핵의 첫 만남이었다.

경산성당에서 자인성당을 신축 분리하고 어려운 처지의 결핵환자를 돌보던중 69년 그 스스로가 각혈을 하게 된다.

대구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을 거쳐 그 해 11월 국립마산결핵병원 내 천주교 사제관에서 요양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난과 무지로 결핵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이 마산결핵병원 근처에 기숙하며 재입원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는 사제로서의 소명을 결핵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71년 미완쾌의 몸으로 대구로 올라왔다.

그 무렵 그는 구상(具常) 시인의 소개로 필자를 찾아와서 민간요양원 개설과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장시간 의논도 했는데, 그 온화하고 후덕한 인상과 결핵사업에 대한 열정은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결핵사업을 사제의 소명으로

건강이 좋아지자 72년 9월 대구 근교의 화원성당 주임으로 부임했는데 여기에서 대구쪽으로 약 4km 들어간 곳에 대구결핵요양원이 있었고 그 요양원에는 마산결핵병원 시절에 손수 영세시킨 환자들이 여럿 있어 그들의 영신생활을 위해 출입하게 되었다.

그러던중 대구요양원이 운영난으로 폐

쇄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운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망설이다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76년 운영 책임을 맡는다. 당시 수중에 있는 돈은 5만 원이 채 안되었고 남녀 환자 74명은 모두 중증환자였다.

77년 5월에는 여자병동 48평과 취사장 28평을 서독의 원조와 정부보조 등으로 준공했으며, 7월에 한국부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후원회인 밀알회가 만들어지고 가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모금활동을 한 후 귀국했다.

오직 요양원 일에만 전념하기 위해 78년 1월 화원성당 주임을 사임하고 낡은 남자병동 개축과 진료실 및 관리실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며 5월에는 한국가톨릭결핵시설연합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79년 6월 남자병동 162평 개축과 80평의 진료, 관리실 신축을 끝내자 환자들과 함께 회갑 축하미사를 봉헌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난치환자 보호시설인 “밀알의 집” 건립을 계획하고 모금을 위해 일본에 다녀왔는데 지병인 당뇨병 후유증으로 시력과 수족에 서서히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80년 3월 밀알회지 “밀알”을 창간했으며 다음해 3월 도미하여 3개월간 LA,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지에 밀알회 지부를 조직하고 귀국했다. 그때 그는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환자들의 금연을 위해 단호히 줄담배를 끊고 시범을 보였다.

82년 5월 “밀알의 집” 부지로 경북 고령군 고령읍 현문동의 임야 5만여 평과 밭 1천 3백 평을 매입하고 보사부와 아산재단의 지원약속을 받아 고령군에 “밀알의 집”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하루에 있는 고령읍 상수도 취수장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힌다.

12월에 고령군 개진면 개포동으로 “밀알의 집” 건립부지를 옮겨 어렵게 건축허가를 받고 증장비를 투입했으나 이번에는 현지 주민의 맹렬한 반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 이유는 고령읍에서 쫓겨 개진면으로 온 것은 개진면을 우습게 본 결과이며 결핵환자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지고 자녀들 혼사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동한은 결핵에 대한 ‘무지’ 라는 또 하나의 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을 설득했으며 고령군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극적 타결을 보아 마침내 9월 5일 연건평 4백30여 평의 “밀알의 집”을 착공했다. 공사비는 정부보조 7천만 원, 아산재단 7천만 원, 밀알회 후원금 1억4천만 원으로 충당되었다.

#### 사후에 준공된 밀알의 집과 요양원

한편 그는 그런 와중에서도 7월에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온 대구요양원 본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7백 46평의 현대화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병인대교난(丙寅大

教難) 때 순교한 조부 김요한의 사료 수집을 위해 백방으로 애썼다.

8남매의 맏이로서 가족사의 산 증인이며 동생들을 희생적으로 돌본 큰 누님이 세상을 떠나자 소리없이 오열했으며, 그의 당뇨병 증세도 악화한다. 밭에 생긴 종창이 더욱 심해지면서 체온이 오르고 그 종던 식성도 잃어버린다.

83년 8월 22일 대구 가톨릭병원에 입원하여 오른쪽 다리 절단술을 권유받고는 세상 떠날 때 하느님께서 주신 지체를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고 망설이면서 9월 22일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긴다. 9월 25일 주교회의 참석차 로마로 떠나는 동생 김수환 추기경과 병실에서 작별인사를 나누는데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 되었다.

김동한은 1983년 9월 28일 강남성모병원에서 폐수종 병발로 조용히 65세의 생을 마감했으며 9월 30일 그의 생전에 몸도 마음도 다 바쳐 사랑한 요양원에서 환자들과 고별미사를 봉헌하고 대구대교구 청내 성직자묘소 유택에 안장되었다.

그가 생전에 착수했던 “밀알의 집”은 그가 선종한 지 1년 후인 84년 준공되었으며 대구요양원의 신축건물은 85년에 준공되었다.

“신부님은 서양식 중” “스님은 동양식 중”이라고 하면서 서로간에 친밀히 지내던 일타스님은 “어느 화창한 봄날 나의 암자에는 점잖은 노신사님과 일행 몇 분이 찾아오셨다. 수인사를 하고 보니 이분이



김동한 신부가 심혈을 기울여 현대적 건물로 신축한 대구결핵요양원(1985년) 이후 도시개발로 아파트촌에 둘러싸이자 2000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유용으로 이전으며 밀알의 집도 환자 감소로 타시설로 전용되었다. 요양원과 밀알의 집은 그동안 수많은 불우 결핵환자들에게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바로 저 김수환 추기경의 친형인 김동한 신부님이였다. 대구결핵요양원에 계신다는 말씀과 함께 산을 좋아해서 매양 해인사를 자주 찾는다고 하셨다. 봄빛같이 온화한 눈매와 백발이 성성한 신부님의 모습은 성직자다운 노숙한 자용과 아울러 덕 많은 인격자임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회고한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은 실형인 김동한 신부를 다음과 같이 추모하고 있다.

“얼굴은 닳았다고 하는데 마음은 형님이 나보다 훨씬 착하셨다. 인정이 많아 모든 이에 대해 다정하셨고 모든 이를 사랑하셨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이, 약한 이, 병든 이를 참으로 사랑하셨다. 형님이 대구결핵요양원을 맡으시게 된 것에는 당신 자신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결핵을 앓으

시어 얼마 동안 국립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등 고생하신 사연도 있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그 타고난 선한 인정에서였다. 특히 마산병원에 계실 때 가난한 환우들의 딱한 사정을 지켜보면서 불우한 결핵환자들을 돕는 요양원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세우셨던 것 같다. 뿐더러 스스로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벗이 되고 형제가 되고자 하셨다.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계산도 필요 없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뛰어드셨다.”

그가 잠든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성직자 묘소 정문에 라틴어로 새겨진 HODIE MIHI, CRAS TIBI(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의 성귀가 모든 이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